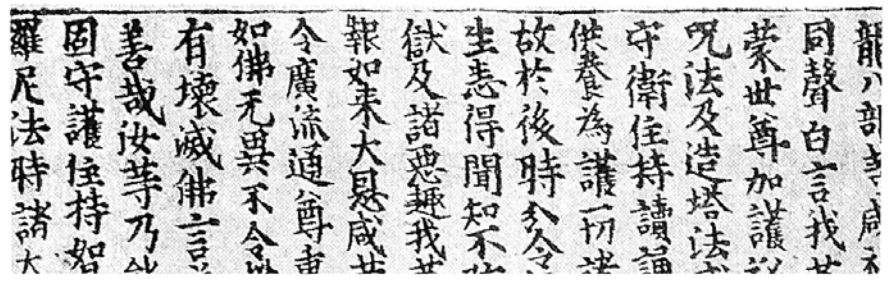


# '다라니경' 한국제작 확실



◇ 최근 제작 논란에 휩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최근 중국 학계가 자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국보 제126호·이하 다라니경)에 대해 국내 학자들은 한결같이 '제작국은 한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국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뒷받침된 구제적인 확인 방법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4년 김성수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가 '서지학연구' 제10집에 발표한 논문 '한국 목판인쇄의 기원연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본 중국학파의 자연과학사연구소 판지연구원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목판 인쇄술 '원조사'의 '본지 111호 15면 참조'는 글자(다라니경)의 제작국이 어디인가까지 비화했다. 단지연구원을 비롯해 중국 학계가 '다라니경'에 당나라 때 축천무후(則天武后)가 제작한 무주제자(武周制

## 천혜봉박사등 전문가 中 작품설 일축 '묵서지편' 복원·지질분석 확인 가능

자가 들어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인쇄돼 신라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8년(다라니경) 복원작업에 직접 참여한 원로 서지학자 천혜봉박사(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당시 지질조사 결과(다라니경)의 지질은 다통으로, 706년 경주 황복사 석탑에 봉안될 당시 중국이 사용하던 종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중국 제작설을 일축했다.

지난 90년 고려 금속활자 발명이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2세기나 앞섰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손보기교수(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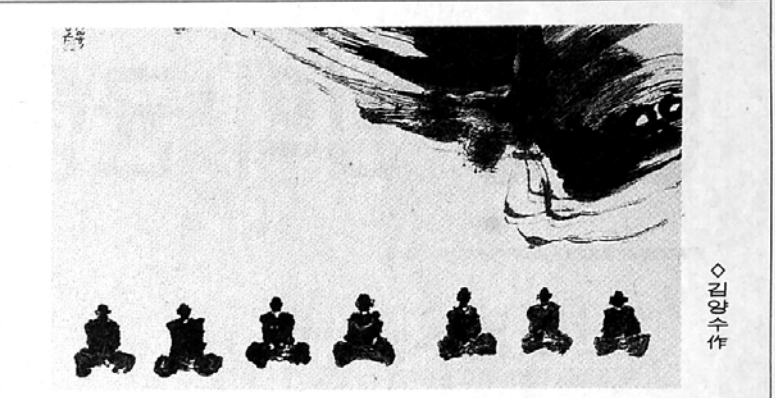
관)하게 다르나, 같은 다통이라도 한국산은 중국산이나 일본산에 비해 섬유질이 훨씬 길어 성분 분석을 하면 제작국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연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 자료의 표본을 이(다라니경)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느 나라 종이인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교수는 '다라니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과정, 제작국가 등을 밝힐 수 없어도, 문화재 보존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교수는 "다라니경의 남당공양은 최소 77부에서 많게는 1백부 이상이며, 706년 황복사 석탑에 봉안했다는 다라니경을 비롯해 8세기중엽까지 불국사 석가탑 등에 이들 다라니경 목판인쇄본이 봉안됐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704년 중국에서 반역된 필사본을 그대로 석가탑에 봉안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임창순 문화재위원장은 "무주제자는 당시 불경이 중국으로부터 한역돼 들어왔고, 그 당시 쓰여진 불경에 이와 같은 표기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것만으로 중국이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 김일수 작

## 法數로 배우는 불교

### 일불승 ④

얼마전 미얀마에 계신 손꼽히는 고승 한분을 초청하여 법회를 연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그동안 우리 한국과 같은 북방불교권에서 써오던 버릇대로 남방불교권에 대해서 소송불교라는 표현을 무심코 했었는데 그 말이 그만 그분의 귀를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다. 스님은 "이천오백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여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남방불교를 왜 소송불교라 칭하는가. 소송이라는 말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등지에서 종종되고 있는 대승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 지역의 불교는 그냥 '남방불교' 혹은 '상좌부' 불교라고

150여년경 부파불교에 갈라진 것으로 남방불교가 전통적 계율과 교법을 전승한 출가중심의 보수적 성향을 띤 상좌부의 맥이라면 대승불교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율과 교법을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에 입각하여 재해석한 재가중심의 진보적 성향을 띤 대승부의 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 둘은 자연히 똑같은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부처님과 교법을 해석했고, 실천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의 주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남방불교는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으로는 직접 설하지 않은 비불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것 말고 마음으로 설한 것을 들은 것이

## 모두 함께 타고가는 法수레

소승·대승 구별 무의미... 똑같은 불제자 남방·북방불교 실천방법 다를뿐 한뿌리

칭하는 것이 옳다"고 힐책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과를 하면서 대승불교권에서 바라보는 상좌부불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했다.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곳 대승 불교권에서 주장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숭배하는 분들은 우리 남방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소송도 라고 무시해 버리는 시각도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이전 서문가 서문을 자세히 알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채워가야 한다"고 하면서 필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셨다. 그 말씀가운데는 우리가 남방불교권에 대해서 대승적 교설에 입각해서만 피상적으로 알고있던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함께 양자간의 수많은 교류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하셨다.

사실 소송이란 혼자 타고 가는 작은 수레(Hina-yana)라는 뜻으로 모두와 함께 타고 가는 큰 수레(Maha-yana)라는 뜻을 지닌 대승에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 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후

대승경전인므로 남방불교경전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남방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생기고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공(空)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살아계셨을 때만 깨달음의 경지가 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중생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승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깨달음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마음에 대해서도 남방불교에서는 마음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무상하고 허망한 마음 말고 그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인 불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행 경지에 대해서도 남방불교는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성문과 연각이 없는 아라한과인데 비해 대승불교는 중생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불과를 주장한다.

이제 열(유마선원장)

# "새로운 삶의 원칙 제시하자"

## '하나로 포럼 선정회' 창립 기념포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불교계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선정문화(禪定文化)'를 통해 불교의 대 사회화상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하나로 포럼 선정회(禪定會)'가 창립과 관심을 끌었다. (본지 112호 15면 참조)

불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지성인 불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은혜사에서 열린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에서는 '선정문화'와 불교의 사회화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고준환교수(경기대 법학)는 "지금 여기,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초발제에서 한국의 선정(禪定) 문화는 세계최고의 문화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교수가 설명한 선정문화는 '간화선 중심이고, 평상심이 도(道)라는 정제에 산(禪)을 통해 무아경(無我境)에 나아가는 진리로 상주진심(常住眞心)이 진여(眞如)라는 것. 이같은 선정문화는 분단의 고통과 경제불황,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노미(Anomie)현상과 동서·남북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광동효부장관(대구고법)은 "우리나라에 대중적 의미에서의 선정문화라는 것이 있느냐"며 의문을 던졌고, 김병규는설위원(문화일보), 전창렬변호사, 노부호교수(서강대 경영) 등은 선정문화의 정의부터 확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교수는 "우리의 선정문화가 세계최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따



◇ '하나로 포럼 선정회'는 매일 한차례씩 포럼을 여는 등 본격적인 '불교의 사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선정문화 분단·도덕상실등 치유 열쇠 禪 바탕 실천 강조 '씽크탱크' 선언

저 들었다.

답변에 나선 고교수는 "선정에 든 이들이 만들어 낸 문화가 선정문화"라고 소개한 뒤 "선정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 혹은 친불교적 방법을 통해 선정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이 포럼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동대표에 선출된 법타스님(은혜사

주지)도 "우리불교는 전문가 부족과 획적 의사소통의 미비로 사회현상에 대해 뒤쳐져 왔다"며 "포럼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나로 포럼 선정회는 사회 제분야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전문적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

불교·정치·경제·사회·문화·국학 등 분야별 연구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선정문화란 무엇인가'(2월)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3월) '평화적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4월) 등 사회와 국가, 인류사회를 주제로 매일 한차례 포럼을 운영하며, 봉사활동 등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 및 보살도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포럼을 마친 참석자들은 26일 은혜사 총회참, 거조암, 군위 인각사, 갖바위를 답사하고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관리실태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영천 은혜사=이운호 기자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화해중생, 보살도를 중생수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전과정 (매주월요일)	1학기 불교개론, 2학기 불교개론 I	1학기 불교개론 II, 2학기 불교개론 III	1학기 불교개론 IV, 2학기 불교개론 V
응용과정 (매주화요일)	1학기 불교개론, 2학기 불교개론 I	1학기 불교개론 II, 2학기 불교개론 III	1학기 불교개론 IV, 2학기 불교개론 V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강일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졸업(이수) ② 불교대학2년(이수) ③ 포교사 이수(취득)	① 입학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③ 경력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동선반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량이 어려우면 지원가능
동선반(30명)	① 불교대학졸업(이수) ② 불교대학2년(이수) ③ 포교사 이수(취득)	① 입학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③ 경력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동선반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량이 어려우면 지원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일일만원
6. 졸업자격: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 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원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권지훈 법사
한글불교의식 I(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침·지력으로 해오시는 예경의식</li> <li>사시 또는 향전에 따라 행하는 현공의식</li> <li>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li> <li>송주 ..... 장엄법</li> </ul>
한글불교의식 II(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일·동·생일의식과 결혼의식</li> <li>장례의식(1) ..... 일반의식</li> <li>장례의식(2) ..... 임종·매장·회향의식</li> <li>세공의식 및 영혼전도를 위한 찬도들의식</li> </ul>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환사서진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3:00~4:30(동산법당) (본연구원 법당)
5. 입학금: ● 일일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